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hc1260@hanmail.net
TEL: 033)256-1260~1
FAX: 033)257-1260
발 행 인 : 장효근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 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 131호 2009년 10월

오곡백과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 10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더욱 사랑하는 10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8:1)

INDEX

2 교회다움으로 가는길
4 삶의 터전에서 성시화의 길을 찾는다
6 복음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옥산포교회)
10 우리 몸의 강물, 혈액이 맑아지는 방법



9 대추·밤·감의의미와 하나님의메시지



13 '엘머 갠트리'와 '기적 만들기'



'교회다움'으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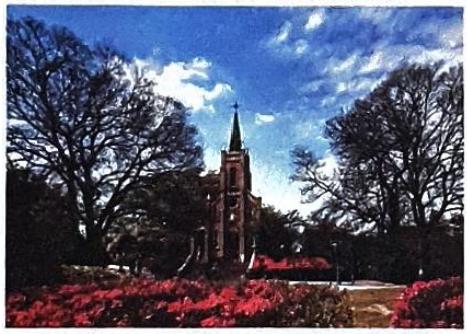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아리 점집의 고객 중 40%가 기독교인이라는 웃지 못 할 통계를 본적이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기성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껴 수십 년 다니던 교회를 떠나 신유나 기적이나 예언이 있는 집회나 교회로 떠돌아다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왜 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기도원이나 집회에 가서 기도 받고 내려오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에는 은혜를 받는데, 그 설교가 개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설교가 성경 본문이 주는 보편적 교훈이라면 개개인의 삶의 상황은 구체적이다. 보편적인 말씀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가령, 한 젊은이가 두 회사의 입사 시험에 모두 합격했을 때, 두 회사 중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사람들은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가득하지만 그 말씀에서 구체적인 삶에 대한 지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분명하게 말해주는 곳으로 마음이 끌리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러한 문제는 현재 한국 교회가 어디에 와있고,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암시를 주는 문제라 생각한다

아마도 위의 문제는 신앙의 기초가 약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위기가 올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신앙의 본질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 등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면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호6:6).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다. 표준새번역에서는 인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한다. 마태복음 22장 37-3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의식이란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진다. 만약 본질이 무너지면 의식만 남게 된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본질이 없는 껍데기뿐이라고 질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면, 이것을 담는 그릇이 의식이다. 구약의 제사나 번제는 현대의 예배와 헌금과 봉사이기도 하다. 예배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이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었다. 그래서 의식은 그것이 헌금이든지, 예배든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속에 본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많은 예배와 많은 헌금과 많은 기도 즉, 의식은 풍부했는데 그 속에 본질은 빠져버린 것이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원하는 건 이 본질이야!", "내가 원하는 건 본질 없는 의식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본질 없는 의식은 의미가 없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의식들에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예배, 기도, 찬양, 봉사, 구제, 성경공부, 각종의 행사 등은 백백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질은 빠져있고 계속 의식만 강조하고 요구한다면 신앙은 병들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본질이 없는 예배, 본질이 없는 기도, 본질이 없는 헌금 등 본질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고 하신다. 받지 않으실 뿐더러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역겹다는 표현까지 하신다. 그만큼 의식은 본질과 함께 가야 한다. 사실 본질과 의식은 항상 동전 양면과 같다. 본질이 가는 곳에 의식이 있어야 하고, 의식이 있는 곳에 본질이 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전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면 그 결과로 불순종이 나타난다. 그로 인해 죄악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된다.

왜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왜 교인들이 기성교회를 등지고 기적과 예언을 찾아다닐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주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살아가는 목적이나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하다. 의식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은 고갈되어 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현대 교회 안에 본질이 사라져 버리고 의식만 덩그러니 남아 포장되어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무슨 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회복되고,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본질이 회복되기 위하여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야 한다. 하나님의 실재가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한다. 춘천도성 안에 이 거룩한 회복이 10월에 시작되기를...

[편집위원 최영조]

www.seeds21.co.kr
컴퓨터로 만들어 가는 세상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 개강 10월 5일 19일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인천국제성시축전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



박 삼열 목사
인천국제성시축전 상임대회장/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인천송월장로교회

인천국제성시축전이란?

'2009 인천국제성시축전' 이 오는 10월 5~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야제:메시야공연), 인천순복음교회(대회총재:최성규목사), 주안장로교회(대표대회장:나겸일 목사)에서 열린다.

인천시 3500여 교회가 1만명의 차상위 계층과 결연을 맺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5일 전야제 메시야공연을 시작으로 6일 저녁, 인천순복음교회에서 개막집회로 열릴 예정이다. 개막 집회에서는 최성규, 나겸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며, 인천지역 다자녀 가정과 극빈자 · 장애인 · 효 자녀 · 소년소녀가장 등을 격려하고 시상한다. 7, 8일은 주안장로교회에서 오전(포럼과 세션)과 오후집회를 갖는다.

인천국제성시축전은 매일 저녁집회와 오전 세션과 포럼으로 진행되는데 가정사역포럼, 세계성시화운동 지도자전력회의, 국제대학생선교전략 포럼, 여성리더십포럼, 성시전도목회포럼, 중보기도 세미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된다. 최성규 목사(대회총재), 나겸일 목사(대표대회장), 이호문 감독(명예대회장),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손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 이천휘 목사(부평제일교회) 등이 주강사로 나서고, 김상돈 목사, 손신철 목사, 전명구 감독, 한종수 목사, 김종웅 목사, 김상현 목사, 김태일 목사, 한기형 감독, 하귀호 목사, 전용태 장로, 이건오 장로, 양인평 장로 등이 주요 예배를 인도하며, 탤런트 임동진 목사와 윤여표 장로, 정영숙 권사 등이 간증자로 나선다.

인천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

2009 인천국제성시축전은 인천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인천의 3,000여 교회가 연합하여 성장의 정체와 영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인천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 특별히 우리 인천은 124년 전 복음이 처음 들어온 복음의 도시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지금은 3000교회, 95만이라는 커다란 교세로 성장했고, 송도와 청라지구 등 경제특구의 개발로 인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성시축전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의 교회들의 영적 재무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천이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도시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하며 꿈꾼다.

교회연합과 일치를 기반으로 전도에 집중해야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성시축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마도 인천교회의 연합과 일치이다. 이를 위해 첫날 각 구 기독교연합회별 목회자 체육대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인천교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을 다짐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합과 일치를 기반으로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에 집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실제적 열매가 있어야 한다. 내실있는 성시축전을 위해 지난 7월 한국대학생선교회와 함께 인천의 교회들이 도시전도를 통해 전도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했고, 실질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성시축전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전도를 통해 인천의 복음화율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춘천성시시문을 통해 성시축전을 소개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성시화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성시화의 고장, 춘천이 성시화의 활성화를 크게 이루며 성시화의 모델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성시주일지키기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성시주일지키기
10월은 성시화운동이 태동된 달입니다.
10월 중 한주간을 성시주일로 지켜주시고
성시화운동을 위해 기도해주시며
성시화를 위해 헌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033)256-1260
* 계좌번호 : 농협 172242-51-085114
  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Young 2080팀 초청 소그룹 리더훈련학교(SLTC) 안내

▶ 경과 : 춘천의 기독청년들에게 기독청년의 비전을 심어주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춘천기독청년포럼이 청년사역 전문 사역팀인 Young 2080 팀을 초청하여 연합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이하 GLTC)를 개최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부흥의 기초가 되는 소그룹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일시 : 2009년 10월중 월, 화 오후 7:30~10:30

1	10/19(월)	리더의 말씀다루는 능력	고직한 선교사	기초 IBS
2	10/20(화)	답이 있는 소그룹	장완익 목사	중급 IBS
3	10/26(월)	소그룹 리더십	장완익 목사	GBS 실습1
4	10/27(화)	소그룹 Body Life	전경호 목사	GBS 실습2
5	11/2(월)	리더의 제자도	전경호 목사	GBS 실습3
6	11/3(화)	질문경청 워크샵	장완익 목사	GQS 1
7	11/9(월)	소그룹과 기도	전경호 목사	GQS 2
8	11/10(화)	GQS 인도법	이광진 목사	SLTC수료식

▶ 회비 : 1인당 65,000원
입금계좌 : 농협 303812-52-008361 청년연합포럼(이순복)

▶ 장소 : 주향교회 (강의장 및 소그룹실)

▶ 주최 : 춘천기독청년포럼
(연락처 이병철 010-6254-3162, 엄기홍 011-366-7845, 박도준 010-5743-0236, 이순복 010-5790-0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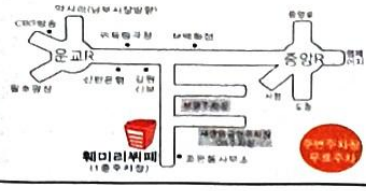
"500석 규모의 넓은 홀"
기분좋은 만남! 소중한 추억!

웨미리 뷔페

회갑연 고희연 돌/백일
각종모임 단체모임
출장뷔페 결혼식피로연 잔치음식

※돌잔치 각종 서비스 : 돌상차림, 케익, 돌잡이 이벤트, 돌잡이 용품 풍선장식, 원판사진, 압축앨범or엣자, 포토테이블, 빔프로젝트 기타등등

평일 점심 상설 뷔페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1:30 ~ 오후 2:00
성인 9,000원 / 7세~초등 3,000원
** 주차권 무료 발급 **



예/약/문/의
☎(033)251-2154
☎(033)251-2158

성시화의 달 10월에 만난 사람



삶의 터전에서 성시화의 길을 찾는다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춘천성시화!

이 시간에는 춘천시직장선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영래 권사(신성감리교회, 농협중앙회 중앙로지점 부지점장)님과의 인터뷰입니다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이 일어난 이래, 성시화운동은 목회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하에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일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로 이어져 내려왔다. 성시화는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는 예배당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며, "세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구별되고 새로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롬 12:1-2)들의 삶의 터전에서 꽃이 피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직장선교는 성시화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춘천성시화운동이 일어난 지 어언 37년.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성시화를 영역선교의 최전방에서 하나님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직장선교사들의 비전을 함께 품어보자.

■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성탄절 때 교회에서 주는 사탕을 먹기 위해 학교 인근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 그러다가 군대 입대하고 나서 훈련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단체 세례를 받았다. 성년이 되어 1989~1991년 약 3년간 춘천 후평동 충인성결교회에 출석하면서 부부가 세례를 정식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담임목사님이 서울 아현교회로 전근해 가신 후부터 교회에 마음을 두기 못하고 8년 동안 신앙생활 방학에 들어갔다. 이때 직장승진, 재물, 자녀진학 등에 있어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러다가 2000년 6월, 직장상사인 홍세표 장로님의 권유로 신성감리교회(김창수 감독 시무)를 출석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둘째아들의 진학문제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다. 2000년 10월부터 시작된 새벽기도의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둘째아들(예명 정동화)이 뮤지컬 배우인데, 작품마다(13번째) 주연으로 캐스팅되는 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생겼다.

■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통해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째아들의 진학 등의 문제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되었다. 춘천에서 25년간 농협중앙회강원본부에서 일하면서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을 주도해 오던 제가 갑자기 모임을 피하고 술을 기피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저를 보고 주변사람들이 교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었다. 현재는 장남부부(김동진 집사, 이지현 집사, 자녀 주하)도 춘천시내농협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신성교회를 섬기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체험한 두 가지 영적교훈이 있다. 초신자 때 토지보상자금으로 몇 억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십일조를 하지 못했다.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했는데 과욕으로 인해 그 재물을 다 잃었다. 그때 십일조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렸다면 몇 십 배의 축복을 받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한다. 또한 하나님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싶다. 반드시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

■ 춘천시직장선교연합회 회장으로 가지고 계신 비전을 말씀해 달라.

지난 2009년 5월 1일자로 춘천시직장선교연합회 20차기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중책을 주셨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올해로 춘천직장선교연합회가 조직된 지 벌써 20년을 맞았다.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회장으로 섬기는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마음먹은 과제가 있다.

첫째, 춘천시 각 직장선교회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정비와 회원증대 및 활성화에 주력하는 일이다. 춘천시내 직장에 선교회가 조직된 직장은 약 50여개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파악된 선교회는 31개 정도로 과거에는 직장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직장선교회가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절반가량은 회장이 선출되지 못해 공석으로 총무 정도만 임명돼 있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이유를 분석해보면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본인이 크리스천이란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일은 직장선교회 임원들과 수시 또는 정기모임과 소속자체 신우회예배 및 직장선교회예배 참석 등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도록 권면하여 조직정비는 물론 회원증대와 운영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직장선교회 문의 : 010-5374-2356]

둘째, 직장인정오예배 참석률을 높이고자 한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12시부터 1시간 동부장로교회에서 직장인정오예배를 정기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 드리고 있다. 그러나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을 받는다. 동료직원상호간 중식교대근무, 중식시간이동에 따른 시간소요 등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참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월 평균 60명 내외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예배 30분, 중식 30분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직장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정오예배는 직장선교회별 조직이 정비 되는대로 직장선교회별 주최예배를 순번제로 꾸준하게 드리게 함으로써 적어도 1년에 12회 12개 직장이 주관하도록 하며 1단계로 30여개 직장선교회를 동참하여 3년에 1회 정도의 정오예배를 주최케 하여 참석률 제고에 최선을 다고하자 한다.

셋째, 춘천성시화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홀리클럽, 예수전도단춘천지부 등 각종 선교단체와도 연합하여 춘천성시화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현시대는 직장선교의 시대이다. 현재 춘천지역 직장선교회는 50여개에 1천여 명의 회원에 불과하다. 직장인은 이 지역에서 최대사회집단이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인이 너무도 많이 있는 영혼구원의 황금어장이다. 또한 직장인은 가정과 여론주도층이 많아 가정과 사회에 복음화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기업활동의 세계화에 따라 해외파견근무 직장인이 증가되어 자비량선교사로서 세계선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새로운 미전도종족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활동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 내에서 보내고 있어 외부인이 전도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동료직장인들은 친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직장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훈련으로 무장된 동료직장인 크리스천이다. 주님은 직장인 크리스천을 직장선교사이자 주님의 증인으로 보냈다. 춘천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직장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 참여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춘천성시화가 도약할 수 있는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끝으로 평소 제가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리고자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취재 정재호, 사진 김미경]





2009년 직장선교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내가 만난 선교사

복음의 황무지, 인도비하르를 다녀와서





2009년 여름에, 정확히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인도 비하르를 다녀왔다. 올해 새워진 비하르 신학교 강의를 위하여 다녀왔는데, 그때 만난 선교사님들 중에 제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두 분이 있었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픈 마음에 이 지면에 소개한다.



먼저 김바울 선교사. 그는 인도 비하르 파트나(파트나는 비하르 주(州) 중심도시이다)에서 태어나서 자란 선교사이다. 그의 원 이름은 김현민. 지난 8월에 돌을 맞은 아기 선교사이다. 그는 비하르에서 기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친베리아 사역을 하는 김진만, 이보경 선교사의 아들이며 셋째이다. 지금 젖을 떼고 이유식도 없이 인도 음식을 마구 입에 집어넣고 먹는 거의 인도사람이 된 아이이다. 이것이 내가 아는 김바울 선교사의 프로필이다. 그에게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선교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붙는 호칭이 아니다. 그는 분명 사역자이다.

8월 26일 토요일 새벽에 우리 일행은 그와 함께 친베리아 마을로 가기 위해 자무이행 기차를 탔다. 새벽이지만 그는 잠투정도 없이, 가는 기차 안에서 그렇게 의젓할 수가 없다.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한 사역이 밤 10시 30분 파트나 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그렇게 생기발랄할 수가 없었다.

난 하루 종일 그의 사역을 지켜보았다. 친베리아는 아주 외진 조그만 동네이다. 위치가 그렇다는 말이지 인구는 도시만큼 많고 붐빈다. 그곳에는 ccf 춘천광염교회에서 미션스쿨을 세운 곳이다(미션스쿨은 3층 건물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건물이다. 그곳은 주일이면 교회가 된다). 우리는 학교 주변 마을로 심방을 다녔다. 김바울 선교사는 그 동네에 유명인사이다. 가는 곳마다 그는 엄마인 이보경 선교사 품을 떠났다. 엄마가 통역하느라 바쁠 때, 김 바울 선교사도 엄마 못지않게 바빴다. 인도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안아 보려고 난리다. 그는 특히 인도 여자들에게 인기다. 나이가 많든 어리든 가리지 않고 인기다. 그 여자들 품에 안긴 그는 유난히 뽀얀 피부를 드러내며 방긋 방긋 웃는다. 엄마가 안 보인다고 칭얼대지 않는다. 찾지도 않는다. 엄마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많은 인도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사역을 한다. 그로 인하여 인도 사람과 접촉점이 생긴다. 그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놓고 우리를 맞이하도록 사역하고 있다. 그 땅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큰 사역을 하는 것인데, 그는 더욱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가끔 엄마인 이보경 선교사가 아들을 찾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선 땅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의 자녀들도 같은 사역을 했다고 한다. 이 땅에 태어난 최초의 서양아이인 서우드 홉(1893. 11. 10일생, 후에 그는 이 땅의 결핵퇴치운동을 했던 선교사이다)도 그랬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보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했다('닥터 홉의 조선회상」중에서). 선교사에 대한 거부감을 그 아들이 제거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선교의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선교사라고 부른다.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열악한 선교지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한명의 선교사는 남병진 선교사이다. 그는 춘천은혜교회(지용찬 목사)에서 파송한 선교사이다. 그분이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주변 목사님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고, 또 한국에 있을 때 특별한 사역을 한 것도 없고 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남 선교사는 파트나에서 6시간 떨어져 있는 '다르방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만 접했다. 그러다 남 선교사가 뉴스의 초점이 된 적이 있다.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그 신부가 파트나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루마니아 출신의 마리아 선교사라는 데에는 모두 놀라워했다. 왜 그랬는지 춘천은혜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에 참석하고서 목사님들의 반응을 이해했다. 지금도 농담처럼 하는 말이 신부가 너무 아깝다고 했고, 남 선교사는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가하는 말들을 한다.

이번 인도 비하르 신학교 사역을 위해 파트나에 있을 때, 남 선교사가 일이 있어서 선교센터에 들렀다가, 잠깐의 반가운 해후를 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남 선교사는 다르방가와 파트나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마리아 선교사는 파트나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비전을 키워가고 있었다.

인도는 아주 뿌리 깊은 신분제도인 카스트에 얽매여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구별이 없어졌지만 아래층 신분이 상류층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사회규범이 인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인도사람들도 인정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 거기에 신앙적인 장벽도 있다. 인도는 거의 힌두교인들이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힌두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독교인으로 변화해서 산다는 것은 신분제도의 장벽만큼 사회의 지도층으로 서 가기가 어렵다.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택한 길은 고아원사역이다. 어려서부터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하고, 신분의 장벽을 넘어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해 가도록 비전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 특별히 파트나에서 영어로 교육하는 최 상급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상위계층으로 교육해서 인도 사회의 지도자 그룹에 진출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인도의 신분 장벽을 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도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의 진행된 것으로 보면 성공적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하다.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 당장의 선교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 꿈이 실현되도록 기도부탁을 받았다.

그렇다! 우리의 조급함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처음부터 사람을 찾아 키우는 것 아닌가?

[편집위원 고재민]

[선교사 열전 (II)]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James Hudson Taylor)

- 출생 : 1832. 5. 21. 영국 요크셔 반슬리
- 사망 : 1905. 6. 3. 중국 호남성 창사
- 사역 : 중국내지선교회의 선봉자(현 국제 OMF)

그가 남긴 유명한 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 그러나 종종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자. 그것은 우리가 그의 길을 걷고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그에게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양식이 모자라는 법이 없다."

[편집위원 조나단 (Dr. Jonathan Nimal)]





북경 구일 외국어 학교는
중국의 수도 북경의 국제공항에 인접한 순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중국 유학을 돕는
한국 유학생 전문학교이다.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 중국과 상대할
21세기 중국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북경구일외국어학교
BEIJING GUIL FOREIGN LANGUAGE SCHOOL



복음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

옥산포침례교회는 춘천시사농동에 위치한 55년 역사의 교회로 지난 1954년 · 김중렬 전도사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주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를 지키며 아름답게 성장하여 왔다. 옥산포란 지명은 조선시대 옥산포구에서 유래하였으며, 2000년 김기만 목사가 부임한 이래 성령충만한 교회,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교회, 복음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왔는데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옥산포침례교회(김기만 목사)편입니다

김기만 목사

조선시대 옥산포는 소양강 줄기를 따라 지역의 특산물을 왕에게 진상하고, 각종 물류의 흐름을 유통시켰던 강원 영서지역의 중요한 거점 항이었다. 또한 1050년 6월 25일, 북괴군은 기습남침을 통해 하루 만에 춘천을 점령하고 이어 서울을 확대 점령하려던 계획이 옥산포를 중심으로 한 아군의 결사항전으로 그 야욕이 격퇴된 격전지가 바로 옥산포이다. 전차를 앞세운 북괴군의 급속한 전진을 지연시킴으로써 UN군 파병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자유대한을 수호하여 복음한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러한 유래가 있는 옥산포교회와 2000년에 인연을 맺게 된 김기만 목사.

김기만 목사는 충남 예산이 고향이다. 일찍이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모친의 경건한 신앙에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성실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가 목회에 소명을 받은 것은 고등학교시절. 수련회를 통해 성령 충만과 성령세례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게 되었고, 1983년에 주님과의 약속대로 신학교를 입학하여 수학하다 졸업 후에는 부여와 평택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하였다.



춘천 옥산포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초대교회를 재현하자"라는 기치아래 사역하였다. 김 목사는 취임 후 일성으로 "시대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순 없겠지만 당시 교회의 정신은 지금의 우리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의 정신 가운데 영혼 구령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라고 선포하였다.

전도하는 교회

옥산포교회는 창립 사명에 충실하여 일찍부터 전도특공대를 조직하였다. 전도특공대는 교회내의 성령 충만한 집사, 권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매주 전도지를 들고 직접 전도에 나선다. 옥산포교회 주변뿐만이 아니라 전교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전도하도록 훈련되었기에 지금은 70%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인근 지역이 아닌 시내 권에서 출석하고 있다고 문은성 목사(옥산포교회. 부 담임목사)는 설명한다. 옥산포교회의 꿈은 30만 춘천시민들이 모두 한번 이상씩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이 되고,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다.

옥산포교회는 직접 전도뿐만이 아니라 간접 전도의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미 사역 초기부터 시작된 장학사업과 매주 수시로 열리는 바자회는 물론이고, 매달 목요일에는 미용선교가 이루어진다. 지역의 불우한 실버세대들과 지체 장애우들을 돕는 이 사역은 전직 미용단원들과 현직 미용사들의 헌신적 수고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미용선교 후에는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기도와 선교로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

옥산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새벽기도회는 물론이고 매일 저녁에는 '금향로 기도회'가 열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열리는 금향로 기도회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유래했다고 김 목사는 설명한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회는 매일 저녁 1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이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많은 역사들이 교회 내외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금향로 기도회의 든든한 기도를 바탕으로 김기만 목사는 전국을 다니며 각 교회마다 부흥의 불을 지피고 있다. 침례교회 부흥사협회에 속한 김 목사는 매우 인기 있는 강사이다. 김 목사는 때로 외국에서, 때로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는데 따르는 체력적, 영적 부담감도 있지만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난후 성도들이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 주님께 재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한다.

옥산포교회는 또한 선교하는 교회이다. 몽골,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를 비롯하여 국내의 교회들, 침신대, 성서신학원 등 10여 개의 선교지, 교회와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춘천 성시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위대한 꿈을 양아

김기만 목사는 현재 침례교회 지방회장으로서, 또한 부흥사협회 임원으로 섬기며 교회마다 그리스도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해는 성도들의 10가지 신앙수칙을 정했는데, 그 가운데 '평생에 한 가정 당 선교지 1교회 세우기, 1년에 한 아이 후원하기,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하기' 등이 있다. 교회가 김 목사를 중심으로 참 복음을 살아내려 노력하는 아름다운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본 기자가 교회를 탐방하는 가운데 "김기만 목사님은 흠잡을 때 없이 모든 것이 다 좋으십니다"라고 환하게 웃으시는 용기화 권사의 한 마디에 교인들이 얼마나 김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물줄기를 따라 한강까지 강원 영서지역의 진귀한 진상품들을 왕에게 전달하였던 옥산포구. 이제 그 물줄기를 따라 한반도 곳곳에 복음의 강물을 힘차게 흘려보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문의: 241-0900]

[취재 최상도]









| 영혼의 양식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20~32)



김 진 국 목사
(시냇가에 심은나무교회)

어떤 화가가 자신의 모든 실력과 영감을 모아서 생애 최대의 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도난당하고 말았습니다. 실의에 빠진 화가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잃어버린 작품을 찾는 일에 새로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그림이 값비싼 값에 경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화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작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뻐하였습니다. 그 화가는 하나님이시고 걸 작품은 자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히 기뻐하는 화가의 모습은 우리를 되찾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가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에 우리가 주목해 봄직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뉘 집 아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거나 하는 경사스런 일에 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거지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동네 창피한 일이라 쉬쉬할 법도 한데,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서 온 동네 사람에게 떠들썩하게 아들이 알거지가 되어 돌아왔다고 오히려 광고를 하는 셈입니다. 그냥 용서하고 그냥 다시 호적에 올리고 그냥 다시 밥상에 앉게 하고 그냥 집안 일 하게 하지 않고 굳이 잔치를 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잔치에는 아버지의 몇 가지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와 용납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냄새나는 탕자를 그대로 가슴에 품음으로서 이미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는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용서되고 용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잔치는 이를 온 천하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둘째는 헌신과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삭이고 아들의 회복에 온 관심을 쏟아서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 때문에 재산의 피해를 보고도 또 손해 보는 일을 하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은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굳이 보여준다면 탕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일 겁니다.

셋째는 치료와 회복입니다. 우선은 잔치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집안사람과 하인들에게 그 다음으로는 잔치에 초대받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라고 하면서 비록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 행색으로 돌아왔을지라도 당신의 유업을 이을 아들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비단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것은 아들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사람들이 둘째를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도 죄인처럼 살지 않도록, 그래서 아들이 마을에서도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겨운 배려입니다. 누가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 깊은 속을...

우리의 모임(교회와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와 같은 잔치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잔치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 사색의 창

사랑나누기 열린 음악회

최 상 호 (신성감리교회 권사. 시인)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저녁 6시30분.

도로가 좋다고 하지만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정선군 동면 호촌리에는 해가 석양에 걸리어 앞개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우리 신성교회 100여명의 성도들은 정선미술관에 도착하여 아침에 도착한 의료봉사와 미용봉사 팀들의 손목을 잡으며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는 모임에 합류하였다.

해가 어스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풍운교회에서 준비한 저녁을 먹으며 찰옥수수를 하나씩 들고 참 좋은 만남으로 이어졌다.

"사랑나누기 열린음악" 야외예배는 그곳 풍운교회 길옆에 있는 정선미술관 잔디밭에 야외무대를 만들어 햇빛이 사라진 저녁을 조명으로 가득 채웠다. 마을회관에선 마을 리장님이 정선 사투리로 안내 방송을 하시니 밤 기온이 싸늘해지는 호촌리 골짜기에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7시30분. 동네 분들이 삼삼오오 오기 시작하고 깊어가는 가을을 재촉이나 하듯 쓰르라미가 울어대는 가운데 그곳 김동호 목사님이 사회를 맡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시작되었다. 조이현 권사의 "세상 유혹 쫓다기" 찬양은 지금까지 살아옴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나무와 나무사이에 바람이 불어 조명도 흔들리고 어두워진 산촌에 찬양소리도 온 동네를 살리는 구원의 소리 같았다. 이어 남성 중창단의 매혹의 저음소리는 어둔 밤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더위는 저 멀리 가버리고 그 속에 플룻 소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가슴 시리고 간절하며 애절한 소리였다. 몸 찬양 선교단의 율동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존귀함을 춤사위로 나타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큰 갈채를 받았다. 관현악 동아리는 아름다운 선율로 호촌리 밤하늘가득 수놓았다. 가을로 접어드는 처서 날 저녁을 한숨에 사로잡으면서...

박충근 장로 부부의 찬양은 아름다운 부부의 표상이면서 놀라운 하모니로 분명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 같았다. 물벌레가 조명에 뛰어들고 찬이슬이 내리는 야외무대는 행복과 사랑이 충만했다. 색소폰 동아리에서 들려주는 관악합주는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어 여성중창단의 찬양은 하나님을 찾는 인간 내면의 모습이었다. 신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꿈의 찬양이었다. 남여혼성 중창단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달했다.

충남선교회 회장 이천성 권사가 우리교회 소개와 비전을 전하고 "하나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슬처럼 촉촉이 내리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성교회 김창수 목사님의 축도로 한여름 밤의 축제가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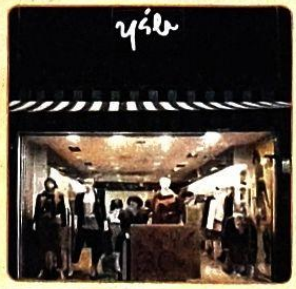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빈다.

2009. 8. 23 호촌리 정선미술관에서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 (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요천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예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열방을 향한 증보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김도훈, 문유선 집사 부부 (중앙감리교회) 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생각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춘천ANI기도학교를 섬기고 있는 부부를 만났다.

하나님의 부르심

김도훈 집사(한림성심병원 신경정신과 과장)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무궁하시다. 물론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내내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부르고 계셨다. 그러나 초청에 응답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의대 졸업을 앞둔 시기에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의사가 평생의 천직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과를 선택해야할지, 장래의 고민 앞에 마음이 가난해졌다(마5:3). 바로 그때, 네비게이토 학생의 전도를 받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누님이 출석하던 수원중앙침례교회에 나가 예배하던 중 구원초청시간에 청년 김 집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영접기도를 받자 교회에서 상담자를 붙여주었는데, 수원 성균관대 네비게이토 선교회 출신이었다. 체계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만남의 축복



인턴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수원 네비게이토 팀을 떠나게 되었다. 하루는 병원 식당에서 평소 습관적으로 하던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식사 후 깜박 잊고 암송지갑을 두고 나왔다. 그런데 우연히 암송지갑을 발견하고 나에게 찾아준 사람이 연세대 네비게이토 리더인 소아과 선배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계속 훈련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선배가 좋은 자매가 있으니 딱 한 번 만나보라며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만남은 이어지지 못했다.

어느 날 석사 과정 중인 그에게 지도교수님께서 가정의학을 하는 사람인데 정신과 논문을 쓰려고 하니 자네가 도와주면서 함께 논문을 쓰라고 하셨다. 함께 논문을 쓸 사람을 만나러 교수님 방으로 갔다. 그런데 얼마 전 선배의 주선으로 만난 그 자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주일에 한 번 논문을 핑계 삼아 데이트 기회를 얻게 된다. 바로 그 자매가 아내 문유선 집사(한림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1996년, 세브란스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직장을 구하다가 어디로 갈까? 기도했다. 그때 춘천성심병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처음부터 춘천에 올 생각이 없었기에 3년 정도만 머물다 갈 작정이었다(5년 전 비로소 자신들의 집을 마련했단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13년이란 시간을 춘천에 머물게 된다. 지금에서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춘천에 온 후 연구실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루 3번 꼭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 병원에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내 소원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당시 병원에 기독신우회가 있었지만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었고 장소도 없어 환자들은 복도 대기실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소원이시면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그러던 중 병원 내 허름한 강당이 때마침 리모델링되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겠구나. 강당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다가 환자들과 지역 사회를 위한 음악회를 열자는 방안을 냈다. 하지만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즈음 한림대병원 선교를 위해 기도해 오던 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복음성가 몇 곡과 일반노래 위주로 하기로 하고 병원의 허락을 받아 음악회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에 열리는 "웰빙음악회"이다. 소양제일교회(이주호 목사)와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 감독)의 도움으로 웰빙음악회를 진행한지 벌써 4년차가 된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식 프로그램이 되었다.

의료 선교



김도훈 집사는 늘 생각한다. 병원은 전도하기 좋은 곳이다. 하지만 의대에서 기독동아리활동을 하다가도 병원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 안타깝다. 기독 의사와 기독 간호사로서 환자를 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2000년, 미국에서 일 년 동안 연수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중국 선교를 위한 의료팀으로 참여하게 된다. 의료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돌아와서 의료팀을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인도, 중국 등 낙후된 선교지로 다니며 사역하고 있다. 지금은 병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의료팀 선교활동 사진 전시회 및 현지의 선교 상황을 알리고 선교기금을 모금해서 후원하고 있다.

ANI 기도학교

현재 김도훈 집사와 문유선 집사는 함께 ANI 춘천기도학교를 섬기고 있다.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많아 새로운 사역에 부담도 많았지만, 아내 문유선 집사의 강한 의지가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문유선 집사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경험했다. 문 집사는 이야기한다. "기도학교는 기도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춘천의 교회들을 연합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더 큰 비전

현대 의학에도 한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치유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환자들의 영·혼·육을 함께 다루는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러한 거룩한 꿈을 꾸는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진 후배들을 양성하고 주변의 같은 사역자들과 함께 네트워킹 하는 사역을 꿈꾼다. 슬하에 딸(김민경-초6), 아들(김성국-초1)을 두었다.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된다.



취재 유병준, 사진 김미경





대추 · 밤 · 감의 의미와 하나님의 메시지



김 동 정
관동대 사학과 겸임 교수/
강원도사편찬실 상임위원/
신성감리교회 권사

가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다.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이나 제사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특히 사계절을 막론하고 등장하는 과일이 있다. '조율시(棗栗柿)' 곧 대추, 밤, 감(곶감)이다. 추석명절 때면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이고 차례상 첫 줄에 왼편부터 놓이게 되는 영예도 얻은 과일이다. 왜 우리 조상들은 유독 이 세 과일을 중요시했을까? 사계절을 막론하고 제례에 사용했다면 어떻게 보관하였을까? 너무나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이 세 과일을 대하는 것이 아닐까?


대추열매

대추는 일반적으로 동쪽, 밝음, 인내(忍耐), 다산(多産) 및 자손의 번창, 왕(王), 우주(宇宙)의 근원(根源) 등을 상징한다. 볕이 잘 드는 동쪽에 심고 열매가 많고 태풍이 몰아쳐도 잘 견디어 내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대추는 꽃 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 하나가 열리고 나서 꽃이 떨어진다. 곧, '자식을 낳고서 죽는다'는 뜻으로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뜻이리라. 또한 대추는 열매에 비하여 씨가 커 왕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추가 차례상 맨 앞에 놓인다고 한다. 이외에도 대추는 우주(宇宙)의 근원(根源)으로 여겨져서 '하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정치하는 왕이 집안에 태어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대추는 어떻게 보관하였기에 사계절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대추는 햇볕에 잘 말리기만 해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아무리 잘 말려도 습기가 있기에 조상들은 실에 꿰어서 달아매어 놓고 오랫동안 보존하였다. 따라서 대추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과일이며, 아울러 인내와 다산을 상징하기에 우리민족의 속성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밤은 보편적으로 서쪽, 어두움, 다산(多産), 단단함[堅固], 조상과의 연결성, 3정승, 천지인(天地人) 등을 상징한다. 뒷산, 뒤뜰에 심고 많이 달리고 밤 자체가 단단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밤은 땅 속의 씨밤이 생밤인 채로 뿌리에 달려 있다가 나무가 자라서 씨앗을 맺어야만 씨밤이 썩는다고 한다. 후손이 태어나는 걸 보고서야 죽는다는 의미로 자기와 조상의 연결성을 상징한다. 밤은 대추 다음에 진설을 하는데, 대추가 우주의 근원(根源)이라면 이 밤은 천지인(天地人)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밤은 한 송이에 밤알 3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 조직의 서열로 보면 왕을 보필하는 3정승(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에 해당되며, 아울러 이에 걸맞은 높은 인품(人品)과 덕망(德望)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 개의 알이 들은 밤송이

밤은 또한 어떻게 보관했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밤은 아무리 금방 주워온 상품(上品)이라 하더라도 2~3일 정도면 벌레가 먹는다. 이 밤을 보관하는 것이야 말로 조상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 대개 구덩이를 파고 모래라든가 타고 남은 재, 흙 등을 밑에 깔고 밤을 그 위에 놓고 그 위에 덮은 형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옛날에 무 구덩이에서 무 꺼내 쓰듯 하였다. 문제는 명절뿐만 아니라 제사가 많은 집안에서는 자주 꺼내 쓰다 보니 공기가 들어가서 썩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우리 조상들은 밤 대신 고구마를 사용하였다. 밤을 차례상에 올릴 때는 반드시 깎아서 올리는데, 고구마를 밤 모양으로 깎아서 사용하였다. 이는 서로 깎아 놓았을 때 색이 같고 깎은 후에도 변하는 색이 같으며 맛도 비슷하기 때문이었으리라. 지금도 '밤고구마'가 유행하고 있으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기만 하다.

감(곶감)은 참 가르침, 좋은 만남, 상부상조(相扶相助), 8방백(方伯) 등을 상징한다. 감 씨앗을 심으면 곧바로 감나무가 되지 않고 고욤나무가 된다. 3~5년쯤 지났을 때 감나무 가지의 눈을 따다가 고욤나무에 접을 붙이면 그 다음 해부터 감이 열린다. 이에 감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며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나무는 감씨를 남기고 감씨는 고욤나무를 잉태하고 고욤나무는 감나무의 도움을 받아 감나무가 되듯 서로 도와주는 곧 상부상조(相扶相助)가 잘 이루어지는 과일이기도 하다. 감은 원래 씨가 8개로 8방백(方伯) 즉 관찰사를 의미한다.

감은 아시다시피 2월까지는 광 속에서 보존될 수 있지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 까맣게 씌어 버린다. 이에 감을 따면 곧바로 깎아서 곶감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존하며 차례상에 올렸던 것이다. 따라서 감은 전통적으로 상부상조하며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우리 민족성에 부합되는 과일이기에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이리라.


고욤나무에 달린 고욤열매

이렇듯 우리가 늘 무심코 가까이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대추, 밤, 감(곶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추의 인내와 왕, 밤의 견고함과 3정승 그리고 감(곶감)의 상부상조와 8방백은 우리 민족성과 나라를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대추는 하나님, 밤은 삼위일체(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감은 하나님의 백성 등의 속성이다. 성경에는 야고보서 5장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욥의 인내'라는 표현으로 '인내'를 강조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여 '흔들림 없는 견고'를 말씀하셨다. 아울러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24절에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이라고 하여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결국, 대추, 밤, 감(곶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 받으라'(마태복음 24:12~13)의 의미로 대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주향교회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

♣ 예배시간 주일오전 11시 / 주일저녁 7시 / 수요저녁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주일학교 주일오전 9시
중고등부 주일오후 1시30분
청년부 토요일저녁 7시

200-150 춘천 우두동 396-2 (소양1교 건너 코아루A 맞은편) 033)256-3927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이정수 / 회향 / 혼합매체 / 53×46cm / 1996년

〈작품설명〉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회향'이란 작품의 명제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작품속의 고향 하늘에는 해와 달이 함께 걸려있고 청산에는 새가 날고 매화향기가 가득합니다. 초가삼간이지만 자족하며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듯 그들의 시선이 먼 밖을 향합니다. 옛 고향의 정취 속에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도약을 작가는 감상자인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나는 그리웠다

또 하루 한 주가 간다
세상의 삶 터에서
쉼 없는 영적 호흡
사명자의 하루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신들린 마음
울부짖던 간구 소리
기도자의 하루

나는 그리웠다
꿈꾸는 천국에서
환화게 미소짓던
동역자의 하루

서울과 춘천
돌고 도는 나의 생활
천국과 세상을 오고가는
영혼의 미소지움

나는 그리웠다

-시. 김장기권사(한길교회)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22

우리 몸의 강물, 혈액이 맑아지는 방법



정형만 원장
(참사랑내과)

혈액은 폐에서 산소를 각 장기와 세포로 실어 나르고, 위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을 신체의 적재적소에 실어 나른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혈액을 탁하게 하는 습관과 맑아지게 하는 습관을 알아보자.

건강하지 못하고 탁한 혈액은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동맥경화가 진행된 혈관은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고 혈관 내에서 피가 뭉쳐 혈전이 생긴다. 이런 현상이 뇌혈관에서 발생하면 뇌생색이 일어나고, 심장에서 발생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1. 과식을 하지 않는다.

혈액을 탁하게 하는 주범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다. 과식은 만병의 원인이다. 과식을 하면 몸속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양이 많아지며 이로 인해 탄수화물과 지방이 혈액 속에서 떠다니며 혈액을 탁하게 만든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과다하게 먹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 속이 좁아진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어서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2. 술과 담배를 멀리한다.

알코올 성분은 우리 몸속의 단백질 성분을 지방으로 바꾸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생성된 지방은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담배를 피우면 혈액 내의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가 증가한다. 산소를 나르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담배연기속의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산소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서 혈전이 잘생기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염증물질이 많이 분비되어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원인이 된다.

3. 스트레스를 잘 조절한다.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결국 포도당과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혈관 내벽에 혈소판을 집착시켜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한다. 산화스트레스는 혈액 내 염증물질을 만들어내서 심혈관질환과 당뇨병을 일으킨다.

4.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신장(콩팥)과 폐, 간 등이다. 이 기관들을 활성화시키고 뇌에서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막으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 운동으로 혈액이 온 몸을 빠르게 순환하면 혈액 내 나쁜 물질은 걸러지고 좋은 물질은 늘어난다. 꾸준한 운동과 심호흡으로 폐활량을 늘려주자.

5. 잠은 충분히 자고 변비를 예방한다.

잠을 자는 동안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몸속의 혈전물질이나 곰팡이균, 세균 등을 제거한다. 따라서 잠을 푹 자는 것은 피를 맑게 하는 자연적인 치료제이고 최고의 보약이다. 수면은 많은 시간을 자는 것보다 깊은 잠을 자야하며 숙면이 가능한 시간대는 밤 1시에서 3시 사이로 이 시간대에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비결이다. 변비가 지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변비는 혈액을 오염시켜서 장기적으로 장염증, 장폐색, 대장암 등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6. 생선과 채소류를 많이 먹는다.

오메가-3지방산은 혈액과 다른 신체조직을 강화시키며 심혈관발병 위험을 줄여준다. 오메가-3지방산은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에 풍부하다. 그 외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으로 채소류 잡곡류,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있다. 특히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당근 토마토, 호박, 시금치, 피망 등의 녹황색채소류와 해조류는 혈관과 혈액을 탄력 있고 깨끗하게 해주고 레드와인과 마늘도 이런 효과가 있다.

종교개혁일(1517.10.31)을 생각하며

- 신약교회의 모형(Pattern)은 있는가? -







신약 초기에 주 예수님과 사도들이 오직 한 제도, 곧 교회를 세우려고 애썼다는 사실에 주의를 끌게 된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주의할지니라."(고전 3:10).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나르는 운반자가 되도록 의도되었다. 이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한다(딤전 3:15). 이 신성한 청사진의 영속성에 관하여 프란시스 쉐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는 아무런 형태 없이 믿는 이들의 단체로서 그곳에 놓여 있지 않았다. 신약의 형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이 표준들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제도적이고 조직화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형태이며, 다른 세기에서와 같이 20세기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바울 사도는 그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정하고, 명령한 모든 것을 한 가지 신성한 청사진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 내었다. 그는 "각처 각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다고 고린도전서 4:17에서 말한다. 신약은 바울이 12개의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적어도 18개의 여러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가리킨다. 그러므로 사도는 문화와 지리를 초월하여 한 가지 신성한 청사진만을 사용하였으며, 오늘날 우리도 그 청사진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신약의 모형을 오늘날의 교회에 부여할 수 있는 성경의 내적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토할 때 시간을 초월한 교회 구조(constitution)를 보여주는 기본원리가 드러난다.

청사진이 작성되었다: 장로들의 자격(딤전 3:1~7; 딛 1:5~9), 경배와 말씀 사역의 질서(고전 11~14장, 딤전 4:6~16), 모임의 기율(고전 5:9~13; 살후 3:6), 재정적인 모금(고전 16:1) 등이 질서 있게 상세히 규정되었다(이것을 고수하는 것이 선택사항인 것처럼 기술되지 않았다).

사도들이 계시를 통하여 받은 신약 교회의 청사진은 의무적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선택적 원리로 구성되지 않았다. 바울은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으라."(딛 2:15).

청사진을 준수했다: 우리는 신약의 모임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성경적 원리들을 실행하는 것을 본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며..."(행 4:12).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대로 그 규례들을 지키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고전 11:2).

신약의 모임들은 그들이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교정을 받았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과 은혜의 논쟁에 관하여 바로 잡는 것이 있다. 디모데 전·후서에는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고가 있다. 고린도전서에는 도덕적 교리적 부패에 관한 교정이 있다. 바울은 시대의 신학적 대소동을 헤쳐 나가며 교회를 조정하는 키로서 쓰여 질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만일 누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고전 14:37)

청사진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교회의 질서는 그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화나 시대에 의해 묶이지 않는다. 이익을 위하여 경쟁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드려진 마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세우신 모형은 모임으로 하여금 살아 있는 머리의 인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종교의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지위에서 그분을 끌어내리려는 욕망으로 가득하다.

C.H. 매켄토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배와 섬김과 관련한 미세한 사항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불충분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큰 실수이다. 이 실수는 교회 안에서 많은 악과 오류를 빚어내는 근원으로 입증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임의 모든 질서와 규칙에 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순종 때문에 반드시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적 전통은 영적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원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임의 머리요 중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한 교회를 사모하며...

편집위원 이 영 규

예 향

남의 은사에 기웃대지 말라

성경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 영웅들은 그 시대마다 쓰임 받은 모습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다. 왕은 왕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순교자는 순교자로서, 사도는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다. 세상은 1등을 최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1등이 아닐지라도 자기 은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최고라고 말한다. 다섯 달란트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기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두 달란트면두 달란트를 남긴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뛰겠다고 확실히 정한 후에는 두리번거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한다. 남의 은사, 남의 사역에 기웃거리지 말라!

[편집위원 최 상 도]

성 시 만 평

이 관 형 · jysince93@hanmail.net



믿음 있는 나의 오늘 모습은?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최영조

편집 위원: 고재만 권기찬 김미경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유병준 정재호 조영춘 조나단 최상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는
봄내호스피스 기쁨의 집
호스피스병원 건립에 관심과 기도를…



춘천시내 외곽도로를 따라 구봉산 쪽으로 가다 보면 동내면 거두리, 대룡산 기슭에 꽃밭으로 둘러쌓인 아담한 건물이 하나 있다. 이곳이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생을 정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봄내호스피스 기쁨의집〉이다. 말기암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 의료적인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의 치료할 것이 없는 상태이다. 기쁨의집은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 마지막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기쁨의집은 2000년 11월에 소양제일교회 이주호 목사를 대표로 시작하여 개원한 이래 9년이 된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532명의 자원봉사자를 교육 시켰으며, 각 교회와 기관, 단체, 그리고 450여명의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말기암 환우들을 500여명 가까이 무료로 섬겨왔다. 기쁨의집에는 매일 하루에 두 번,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드려지는 예배와 영적 케어를 통하여 환우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한분한분 올려 드리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두 분의 환우와 가족 두 분, 합하여 네 분에게 세례식을 하였다. 환우들을 돌보며 헌신하는 천사 같은 간호사들과 환우들의 식단을 담당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매일 오전 오후 야간에 교대로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70여분에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아 늘 큰 감동을 받게 된다.

■ 호스피스란?

호스피스(hospice)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접대하는 사람(host)과 손님(guest)의 두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호스피스 활동은 중세기, 십자군 전쟁 때에 호스피스라는 여인숙에서 수녀나 여 집사들이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픈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숙식과 약을 제공해 주고 하룻밤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준 숙박소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현재의 호스피스는 완화적인 요법 외에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해 6개월 전후 기간만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된 말기환자를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 팀을 이뤄 환자와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돌보는(care) 의료행위와 봉사활동을 뜻한다.

■ 봄내 호스피스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정신에 따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춘천에 설립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며, 말기암환자의 가장 큰 고통인 통증을 전문 의료진이 조절해 드리며 가족들도 돌보기 힘든 말기환자를 24시간 간병해 드린다. 또 환우가 임종시 장례를 도와드리며 유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원도 비영리 민간단체 128호로 등록된 한국호스피스협회 회원 단체)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년 1회)

■ 봄내 호스피스 병원 건립

이제 10년 동안의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고통 받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하여 〈봄내호스피스 무료병원〉을 설립하려 한다. 시설이 부족하여 입원하지 못하고, 병원이 아니기에 입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설립하여 보다 많은 환우들을 섬기고자 한다. 병원이 설립 되면 1년에 200여분의 고통 받는 환우들을 섬길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기쁨의 집 사무국장 박상운 장로]



봄내호스피스 기쁨의 집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98-1
033)263-5454, 261-5652 / 070-7720-6954
홈페이지: www.봄내호스피스.kr

병원건축 후원을 원하시면
- 우체국 202090-01-000511 봄내호스피스
- 농 협 351-0051-1552-43 봄내호스피스

호스피스 편지

춘천 소양로 기지촌에서 한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시한부 인생,
말기 암의 통증은 마지막 한 줌의 평안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시작이 되었지요.
그 분의 마지막 길은
은혜와 감사, 천국 소망,
그리고 평안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500명의 가난하고 믿음 없던 그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였습니다.
거기엔
비록 작고 낡은 시설이었지만(8병상)
기쁨과 보람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후원자들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영리 시설의 한계와 법적인 제약으로
20병상의 병원(의원)으로 가야하는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라고 말하며 제기되는 민원이나
기타 문제가 없는 땅(1,200평)을 사고
병원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려온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 홀로 하기에는 힘에 겨워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9년 9월 15일에
주님의 평안을 기원 드리며
봄내 호스피스 대표 이주호 목사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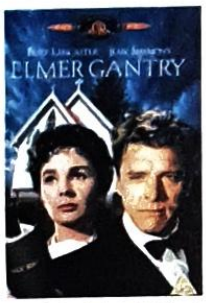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 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28>

'엘머 갠트리(Elmer Gantry)'와 '기적 만들기(Leap Of Faith)'



십여 년 전 어느 날 성탄절 무렵이었다. 교회에 일이 있어 장시간 머물며 사택에서 대기하던 중 마침 교육방송의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영화 속에서 배우들이 찬양하며 은혜로운 분위기로 충만해 있는 것이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오랫동안 뇌리에 박혀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목이 〈엘머 갠트리〉. 그런데 이 영화가 기독교적인 긍정적 내용이 아니라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당시 미국사회와 자본주의의 병폐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는 것에 우선 소개하기에 망설이게 한다. 하지만 영화의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근본 자세를 다시 반성케 하고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찾는다는 긍정적인 결말로 그 영화적 감동과 더불어 한번쯤 봐야 할 작품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신성모독도 아니고 반기독교도 아닌 우리 시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만나게 되는 세상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묵상할 기회도 된다는 것이다. 근래 인터넷 등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신자도 줄고 있는 추세에 스스로 낮추는 자세로 초대교회의 자세로 다시 임해야 함을 느끼게도 한다.

The Bible 시리즈 중 〈모세〉에서 모세 역을 맡은 왕년의 명배우 버트 랭카스터가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며 진 시몬즈 등 추억의 스타들이 등장한 1960년 리처드 브룩스 감독의 작품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영화로 〈기적만들기(Leap Of Faith)〉가 있다. 코믹전문배우 스티브 마틴과 〈새도우랜드〉의 히로인 데보라 윙거, 그리고 〈쉰들러리스트〉의 리암 니슨이 등장하는 리처드 피어스의 1992년 작으로, 기독교인이 실족하기 쉬운 비판적인 상황에 대한 경고를 그렸다. 주인공 조너스 일행이 어느 날 이동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캔사스의 한 마을에 여정을 풀고 머무는 동안 천막부흥회를 열고자 하는데 마을 보안관 월은 오랜 가뭄으로 인한 흉작과 30%를 육박하는 실업률 등 주민들의 극심한 생활고를 이유로 행사 개최를 반대한다. 그러나 종교 박해를 들며 설득한 끝에 결국 허가증을 발부하고 조너스 일행은 매끄러운 설교와 감동적인 가스펠 송이 담긴 로드쇼를 펼친다. 그러는 중에 본의 아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처한 기독교의 당면문제를 겸허히 반성하며 새롭게 은혜와 감동의 사랑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 책소개

살아 있는 교회 (The Living Chruch)

- 현존하는 복음주의자의 교회에 대한 확신 -



존 스토트 (John Stott) 지음 /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 내에서 우리의 삶은 차갑고 메말라가고 있다. 사회는 교회와 복음을 향하여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회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복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지난 몇 개월 필자는 이러한 이슈를 숙고하고 다음 세대인 젊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걱정하였다. 그러던 중 한권의 책을 발견하였고, 이 책은 복음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새롭게 했다. 존 스토트가 쓴 「살아 있는 교회」 이 책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한다.

이 책은 "어떻게 교회가 살아 있는 교회가 되게 하고,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 교회들은 "살아 있는 교회" 이기보다는 "바쁜 교회"인 경향이 있다. 존 스토트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힘을 갱신하고 전진하기를 위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해 준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한 본질적은 요소의 핵심은 배우고, 돌보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바로 그 중심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집사와 목회자가 기도하고 교회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가지라고 권한다. 예배는 교회의 기본 의무이고 거룩함 없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그는 교회에서 공동체로서 그의 왕국 목적에 참여하고 있는 장로와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한다. 그는 사귐에서 "코이노니아"의 역할을 가리키고 작은 기도 그룹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중요성을 말한다. 그리고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교회에 생명을 가져다주는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곳,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께 그들이 새롭게 되기를 위탁하고, 활동적인 교회보다 살아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편집위원 조나단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9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거성교회		광명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사암교회	
새춘천교회		세인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온누리교회		주영광교회	
주향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한빛교회	
국민일보 춘천지사		기독무용선교회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천일현수막	
춘천줄리클럽		행복대장기오성기관	
강선희	강옥자	강진욱	강태광
고순덕	고순자	김경수	김기태
김대숙	김리현	김영숙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민섭	김복심
김봉재	김성국	김성희	김영관
김영영	김영숙	김영순	김영일
김요섭	김은주	김재용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충찬	김주환
김진상	김현미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류재웅	마호숙
민병순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인권	박정애	박제자	박종근
박필상	박현숙	배진철	변춘자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하
안미애	안현주	양금환	오순자
오의석	오흥수	원희정	유길순
유근창	유병준	유성현	유인혁
유재형	윤선자	윤애자	윤태호
윤홍묵	이계운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명순	이무식	이병일
이상돈	이상만	이수길	이수황
이순자	이영진	이은수	이원균
이윤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임재철
임창수	장기남	장기영	장덕례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주현	장창순	전영목	정규시
정미경	정은혜	정재균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영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지
지경희	차경자	최계화	최명숙
최상호	최영순	최을용	최예석
최종덕	최춘영	최혜영	탁광희
한성아	한순수	현희현	함종한
허미정	허순영	허연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홍덕기	황병찬
황은주	황정섭	김영래	

신용카드결제기
유선 · 무선 · POS


◀ KCP-M1500



Mobile-Sign phone ▶

● 단말기설치
● 신규 · 변경 등록
● A/S · 관리
● 현금영수증 발행
● 세무신고자료 발급

대표 김 영 관 장로
신성상사 Tel : 254-4702 H.P : 011-370-4702

비과세로 더 높게
춘천외이신용협동조합
Happy Bank
정기적금 4.8%~5.5%
과세환산금리 5.5%~6.4%
정기예금 4.5%~4.8%
과세환산금리 5.2%~6.4%
자유입출 0.5%~3.5%
[문의전화]
운교본점 255-1007
강남지점 261-1002
예금보장은 1인당 5천만원
◆ 국가유공자, 장애인(3급이상), 독립유공자, 75세이상 고령자 금리우대



관점의 차이

허 대 영 춘천교육장
(춘천중앙장로교회 장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기도문(새번역)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함에는 인색하고 소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육학적 명저를 많이 남긴 오천석 박사가 미국 잡지에서 감동적인 글을 골라 1975년 펴낸 '노란 손수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진정한 용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대는 뉴욕에서 플로리다주의 유명한 포트 라우더 데일이라는 해변으로 가는 장거리 버스이다. 버스에는 4년을 뉴욕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가석방돼 고향인 조지아주의 브로스위크로 돌아가는 빙고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여행 기분에 들뜬 젊은이들에게 가만히 자신의 얘기를 들려준다.

빙고는 형무소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재혼해도 좋다고 통보했지만 3년 반 동안 아내는 편지가 없었다. 빙고는 가석방이 결정되자,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적었다.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버스를 타고 지나쳐 가겠다는 것이었다. 버스가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버스 안에서는 일제히 함성이 터져 나왔다.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1900년대 초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돼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실화(實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973년에는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 주세요(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노래가 히트를 했고,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때는 국민가요가 되었습니다. 또 1998년도 할리우드 영화 '노란 손수건'도 이 노래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글을 읽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빙고는 누구이고 아내는 누구인가? 또 버스 승객은 누구인가? 노란손수건은 기대하며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을까봐 큰 참나무 한 그루를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한 아이들과 온 동네 사람들, 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인 참나무를 보고 함께 함성을 지른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용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이웃이기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렵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분을 닮기 위하여 우리 모두 가슴 가슴마다 마음의 노란 손수건을 답시다.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한도협회
1) 새소식반 전도 교사 주간 강습회
일시: 춘천 · 화천 9. 7부터 12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반10시 저녁반7시
장소: 춘천지회 사무실 대상: 어린이를 전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
등록금: 1인당 3만원(간식 및 운영헌드북, 교사특강교재 포함)
전도자료 다윗 시리즈 5만원(전도자에게만 원가 한정판매)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스컴
1) 학원복음화를 위한 청소년기도모임 "마가의 다락방"
일시: 10.10(토) 오전10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기도실
2)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10.17(토) 오후6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문의: 033)244-5400 예스컴 클럽 club.cyworld.com/yescomelove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설악산 기도등반 : 10. 1(목) ~ 2(금)
2) 세계기도의날 : 10. 11(주일) ~ 12(월), 삼척
3) 경원 캠퍼스간사수련회(수원) : 10. 12(월) ~ 15(목), 수원
4) 춘천CCC 4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 10. 24(토)
5) 겨울금식수련회 여호수아기도회 : 10. 31(토), 속초
문의: 252-0642, 254-5776

◆ 예수원 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문의: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말씀사경회
일시: 10. 6(화) ~ 8(목) 오후7시 장소: 한림대 생명과학관
2) 전 · 현직 간사 및 전임사역자 모임
일시: 10. 9(금) 오후6시 장소: 효자감리교회
3) 40주년 기념대회
일시: 10. 10(토) 오후2시~5시 장소: 춘천교대 집현관
4) 강원간사연합모임
일시: 10. 14(수) ~ 15(목) 장소: 원주 IVF
문의: 252-5200

◆ JDM
1) 말레이시아 선교훈련을 위한 일일차집
일시: 10. 10(토)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장소: 강원대학교 석재 5층 카페
2) TTS 수련회
일시: 10. 31(금) 오후10시 장소: 대전(예정)
3) 화요전체 채플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7:30분
장소: 춘천그리스도의교회(죽림사거리)
대상: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
문의: 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신학선교회
1) GBT 선교학교 개강
일시: 9.21 ~ 11.23 매주월요일 오후7:30
장소: 에덴교회(대룡빌딩 2층) 강사: GBT 선교사 및 간사
2) 전국 리트릿 : 10. 9(금) ~ 10(토), 천안
3) 간사모임 : 10. 28(수) ~ 29(목), 전주
문의: 이선희 간사 010-9244-9094, chunchaon@x2025.or.kr

◆ 인터콥 춘천지부
1) 다윗의 장막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월드미션 예배
일시: 10. 5(월) 오후 7시 (매월 첫째주 월요일)
장소: 춘천광염교회(에막골 진흥APT상가 맞은편)
2) 어린이 BTJ 기도 놀이터(매월 둘째주 토요일)
일시: 10. 10(토) 대상: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어린이
문의: 033)262-1040 / 010-9626-1040 최미혜 간사

◆ 새벽상개 워십선교단 토요워십댄스반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 9:30분~11:00, 오후반 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직장인 · 주부 · 청년 · 사역자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우석초교옆)
문의: 263-6022, 017-374-2440

◆ 목회자 축구회원 모집
일시: 월 ~ 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95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추가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 앞 1.5닭갈비 4층
• 교회 방문 수업 가능 문의: 춘천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미라클 아카데미
대상: 목회자 · 사모 · 지휘자 · 반주자 · 찬양대원 · 일반성도
장소: 효신푸른학교 (KBS강원총국신사옥 및 은편 . 온의동)
문의: 019-763-8868, 다음카페 (미라클하모니)
• 교회성가대 클리닉(찬양발성 · 지휘 · 반주) 방문해 도와드립니다.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목욕 : 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 65세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으로 요양보호사 돕봄이 필요하신 분.
•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장로)

◆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 장기요양 인정 신청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문의: 019-9138-4452, 251-4452 남부제일교회 송항순장로

◆ English Worship 영어예배
일시: 매주 주일 오후2:30 장소: 춘복음춘천교회 겟세마네성전
문의: 최은순 선교사 010-7123-8265

◆ 다니엘선교회-춘천노인원 교사모집
모집대상: 소년원 친구들에게 비전이 있으신 분
봉사내용: 그룹 성경공부인도주 1회 이상
봉사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2시~4시 / 매주 주일 오후2시~3시
문의: 신북장로교회 조민준 목사 011-9062-0415

◆ 설대호느피스 행원선교 기금마련 바자회
일시: 10. 10(토) 오전10시 ~ 오후5시
장소: 소양제일교회 (퇴계동 한주APT 부근, 262-0999)

◆ 춘천할리클럽 카페개설
다음카페 : cafe.daum.net/cchclly

◆ 10월 성시화 연합통성기도회(CCPN)
일시: 10. 9일(금) 오후 1시 유스아트홀(중앙로 유영호치과3층)
주관: 성시화운동본부 주제: 교회연합과 성시화
문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크리스천 기타교실

□ 초 급 반 : 20명
□ 중 급 반 : 15명 (새찬송가 645곡 찬양/반주 완성)
※ 기타 중창단 모집(남 4명, 여 6명)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6:30~8:30
□ 장 소 : 안디옥교회 구성캔 남문건영옆)
□ 운 영 : 3개월 코스 (St/A)
6만원(월2만원 ×3개월)
헌금/후원금으로 실경비 조달
□ 선 교 : 일반 시민 무료
□ 개 강 : 2009. 10. 6(화)
□ 접 수 처 : 육림악기사 (☎252-5041)
□ 문 의 : 010-6654-8280

통기타 대중시대 쉽게 배웁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수 방문 요양센터(기관)

센터장 / 남부제일감리교회 송 항 순 장로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과 65세 미만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원하시는 분
◆ 서비스 : - 등급판정 안내
- 요양사(1급)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 세수 · 목욕 · 배변처리 · 식사 · 세탁 · 청소 · 산책 · 병원 진료 동행

☎ 상담문의 033)251-4452, 019-9138-4452 (남부로터리 대원당 옆)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9월 사무국예배가 16일(수)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있었다. 이날 이주호 목사(소양제일교회)는 "오벧에돔의 축복"(대상 13:9~14)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자기 의를 앞세워 법궤를 운반한 웃사는 심판을 받았지만 임시로 머무른 법궤를 끝까지 지킨 오벧에돔의 집은 축복을 받았다"며 "거룩한 성시화를 얘기하지만 현실은 베레스 웃사와 같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시화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있는 그곳이 오벧에돔의 집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춘천 성시화와 교회와 각 기관들의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 통일나눔터, 실천 가능한 사역에 동참하기로



북한선교와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나눔터(회장 김수복 목사) 모임이 9월에도 매주 화요일 오후5시 거성교회와 화목교회에서 열렸다. 지난 7월 패트릭 김 선교사(미국)의 북한선교 간증세미나를 계기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밤나무심기운동과 북한여성들을 위한 생리대제조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란다(문의: 256-1260).

■ <노잉> 영화 상영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9월 10일(목) 오후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영화 <노잉>을 상영하였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주제를 다룬 노잉은 엄격히 성경적 관점은 아니지만 복음의 중요성과 구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인상적인 영화이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에 성시신문에 소개되었던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 기아대책 전국이사세미나 춘천지역회 참가



기아대책 춘천지역회(회장 원기배)는 8월 31일부터 1박 2일 동안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기아대책 전국이사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동행, 우리는 동역자입니다"로 약 1천1백여 명의 전국 지역이사들이 모여서 기아대책 사업 보고와 '동역비전 2010'을 비롯한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아대책 춘천지역회는 우즈베키스탄 아동(15명)을 결연하여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춘천지역의 불우한 이웃지원 등 지역복지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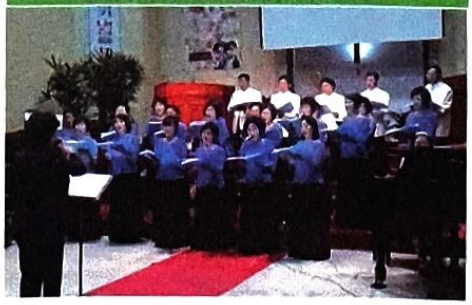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창립 및 이상열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9월 11일(금) 오전11시 대성전에서 있었다. 이날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한 조용기 목사는 "교회창립은 새로운 도전"이라며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합께 합력해 지역복음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그리스도의 덕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훈 목사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부흥비결은 기도"라면서 "춘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성령충만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부흥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축복했다. 이날 서약 및 치리권 부여 순서를 통해 담임목사로 공표된 이상열 목사는 "춘천교회는 순복음의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28만 춘천시민 복음화를 이루고 강원 및 북한지역, 세계 선교까지 감당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YMCA 사회인 야구단 창단



춘천YMCA(이사장 유영호)는 YMCA의 야구전통을 부활시키고 춘천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야구열기에 동참하며, 생활체육으로서의 야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국 최초의 'YMCA 사회인 야구단'을 창단하였다. 총15명의 창단멤버로 구성된 YMCA야구단은 춘천에 거주하는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춘천초등학교 감독출신인 이근영씨가 초대단장을 맡게 되었다. 지난 9월 19일(토) 오후7시 춘천YMCA 장학리 본관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동계훈련을 거쳐 내년부터는 호반리그에 참여할 계획이다.

제3회 성시합창단 찬양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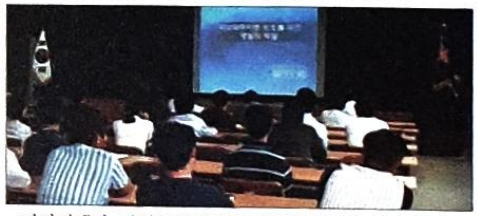
춘천흘리클럽(회장:이학규) 주관으로 춘천성시합창단(단장:정세환) 제3회 찬양축제가 9월 27일(주일) 오후7시30분 춘천동성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춘천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춘천성시합창단은 이날 '주의 빛 안에 살면'이라는 주제로 '주의 사랑 안에서' 외 4곡의 성가곡을 선사하였으며, CCM가수 양기준씨와 복음성가가수 이화숙 권사의 찬조 출연이 있었다.

■ 청년리더십세미나



지난 9월 5일(토) 주향교회에서는 인터콥 춘천지부 주최로 '청년리더십세미나'가 춘천지역의 청년들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사 최바울 선교사(인터콥 본부장)는 '글로벌시대 기독청년'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마지막 글로벌시대의 세상 메커니즘과 문화들로 인해 혼동되어진 포스트모더니즘 속에 기독청년들이 분별해야 할 것들과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슬람의 확산과 한국 내 이슬람운동에 대해 깨어있어야 할 것에 대한 도전의 시간을 가졌다.

■ 경찰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기원)은 9월 22일 오전11시 홍천경찰서에서 경찰 5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10월 강원도 영서지역 관할 경찰서(춘천 화천 철원 양구 인제 평창 영월 횡성 홍천)를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주향교회 입당감사예배



춘천시 우두동 396-2번지에 자리한 주향교회(이병철 담임목사)는 성전을 재건축하고 9월 26일(토) 오전11시 새 성전에서 입당감사 및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도약과 헌신을 다짐했다. 황동노회 증경노회장 김승광 목사(대구성당제일교회)는 설교에서 "축복이 넘치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축복받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축원했다.

【09춘천성시화리그 9월 경기결과】 2009. 9. 22 현재

교회	방은	퍼신	동부	한림대	석사	명동	소양	동성장로	시온	은혜	계명	중앙	자대대	동부	초원	승점	경기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
방은						21		52	44		14		35			51	6	3	1	2	20	17	3	10	5
퍼신			07		11		23			42		02		23			6	1	1	4	9	18	-9	4	13
동부		70		42				41	22		24						5	2	1	2	20	9	11	10	4
한림대			24				07			22		22					4	0	2	2	6	15	-9	2	14
석사		11				02		20	31		02						5	1	1	3	6	7	-1	7	9
명동	12			20		33				10							4	1	1	2	7	5	2	7	8
소양		32		70			33		31	02							4	2	1	1	7	5	2	7	8
동성장로	35		14		02			13						23			6	1	1	4	11	21	-10	11	3
시온	44		22		13		23		21		33						7	1	1	5	17	19	-2	7	10
은혜		24		22		01		33				11			33	21	7	2	1	4	12	12	0	9	6
계명	41		43		30			10					56		31	05	7	1	1	5	20	11	9	10	4
중앙		20		22					11					23	04	01	6	1	1	4	7	9	-2	4	11
자대대	52						31	33		05					33	04	6	1	1	4	10	12	-2	7	10
동부		32				32			13		22				44	05	6	2	1	3	13	13	0	6	7
초원	15								13	13	00	23	44			01	6	1	1	4	13	20	-7	4	12

【춘천미선리그 10월 대진표】

일시		10월 05	10월 12	10월 19	10월 26
A구장	20	중앙대사	자대대 결산	효자소방	시온일천동
	21	은혜리소방	소양제일성결	동부 김은	효자성결
	22	퍼일성부	은누리 역사	소양제일 삼천동	소양역사
B구장	20	소양제일결산	제일 삼천동	은누리 동부	동부자대대
	21	자대리일천동	동방 동부	퍼일 결산	은누리 방은일
	22	명화동부	효자시온	시온성문	제일명화

'09년 춘천미선리그 (주최: 춘천시 교회축구연합회)
- 기 간: 2009. 8월 ~12월 (18주)
- 일 시: 매주 월요일 20:00~24:00
- 장 소: 공지천 축구장(2면)
- 방 법: 15개 교회 풀리그(105경기)

춘천장로교연합 부흥성회

■ 일시 : 2009년 10월 25일(종교개혁주일)~27일(화) 저녁 7시

■ 목회자 세미나 : 10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춘천제일교회당 (박상호목사 시무)

■ 강사 : 김 명 혁 목사 (강변교회 원로목사)



김명혁 목사 약력

-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 졸업
- 웨이스 신학교 졸업(B.D)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Th.M)
- 아퀴나스 신학원 졸업(Ph.D)
- 총신대 교수역임
- 합동신학교 교수 역임, 현, 명예교수
- 한기총 공동회장 역임
- 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 현, 강변교회 원로목사

교회건축(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구조물 보수, 보강 전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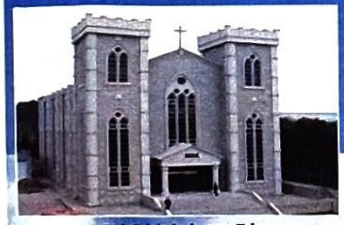


대표이사 강상용장로
(서울북노회 / 상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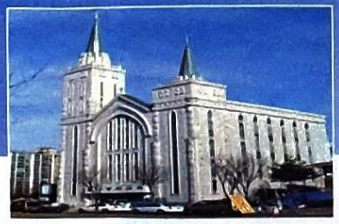


대표이사 이진배장로
(강원노회 / 성광교회)

교회건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든 것
이제 엘리트와 상담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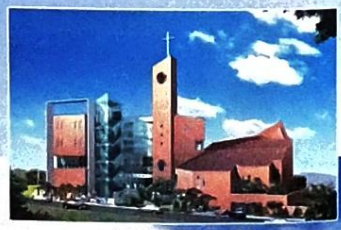
평양봉수교회



일산승리교회



오창대교회



마천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2-2 (덕원빌딩 2층) T. 02_529_1893~6 F. 02_529_1897
E-mail. elitecd@paran.com homepage. hppt://www.elite-cd.com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60-8 청산빌딩 3층 T. 033_254_5070 F. 033_254_5170
E-mail. ejb5222@hanmail.net H.P. 011_9795_5570

(株)엘리트 개발
(株)엘리트 공영
(株)엘리트기발공영
(株)엘리트산업개발